

두쪽 난 광복절... 정부·광복회 별도 기념식

정부 경축식 2000여명 참석
尹 “분단 지속...광복은 미완성”
이종찬 광복회장 기념사
“친일사관 사회 혼란에 빠트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 등 참석자들과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79주년 8·15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이 이종찬 광복회 회장과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나라를 되찾은 기쁨”도 최악으로 치닫는 정치권의 갈등은 봉합하지 못했다. 정부가 15일 주최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야당과 일부 독립단체의 불참으로, 결국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반발해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경축식에 불참하고 자체 경축식을 열었다. 광복절 경축식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두 동강이 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식 경축식을 거행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와 시민, 학생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왔다”며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분단 체제가 지속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 회장이 이날 불참하면서 통상 광복회장이 맡았던 경축식

기념사는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이 대신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50여명이, 야권에서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만 참석했다.

이날 광복절 경축식은 이례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진행됐다. 광복회 등 37개 단체가 모인 독립운동단체연합과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은 같은 시각 정

부 행사장에서 3.4km 떨어진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열었다.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별도 행사를 진행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관에 몰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우리의 역사 의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물러설 수 없

는 투쟁의 일환으로 광복회원들의 결기를 보여줘야 했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등 350여명이 참석했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인사 100여명도 정부 경축식 대신 이 자리를 지켰다.

민주당은 이날 규탄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이 자행 중인 ‘역사 쿠데타’로 독립 투쟁의 역사가 부정되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효창공원 내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했으며,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굴종 외교 규탄’ 회견을 열어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 주최 기념식에 불참하고, 대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독립선열을 참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터졌다” 김도영, 30홈런-30도루



KIA 타이거즈의 ‘신해결사’ 김도영이 KBO리그 역사를 새로 썼다.

KIA 김도영이 15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11차전에서 3-1로 앞선 5회 1사 1루에서 다승 공동 1위(11승) 하이수스의 149km 초구 직구를 잡아당겨 담장을 넘겼다.

맞는 순간 홈런이었던 큰 타구는 130m를 비행해 중앙 담장 밖에 떨어지면서 김도영의 시즌 30번째 홈런이 됐다.

앞서 33개의 도루를 기록하고 있던 김도영은 이 홈런으로 KBO리그 통산 9번째 ‘30-30’을 기록했다.

타이거즈 선수로는 1997년 이종범, 1999년 홍현

기움과의 경기서 5회 홈런포
KBO 최연소·최소경기 기록

우에 이은 세 번째다.

이종범은 1997년 9월 20일 광주 쌍방울전에서 27세 1개월 5일에 기록을 달성했다. 홍현우는 1999년 9월 27일 한화를 상대로 26세 11개월 30일에 ‘30-30’을 완성했다.

김도영은 이번 홈런으로 KBO리그 최연소 ‘30-30’ 주인공이 됐다.

앞선 최연소 기록은 박재홍의 22세 11개월 27일, 김도영은 20세 10개월 13일에 대기록을 달성했다.

역대 최소 경기 기록도 새로 만들었다. 김도영은 시즌 111번째 경기에서 ‘30-30’을 기록하면서 2015년 에릭 테임즈의 112경기에 앞섰다.

2022년 광주 동성고를 졸업하고 프로 무대에 뛰어난 ‘3년 차’ 김도영은 지난 4월 KBO리그 사상 첫 ‘월간 10-10’ 주인공이 되면서 기록의 서막을 올렸다.

김도영은 4월 25일 키움과의 원정경기에서 김선기를 상대로 시즌 10번째 홈런을 기록했다. 이와



15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와 키움의 경기. 5회초 1사 1루 상황에서 KIA 김도영이 투런홈런을 치며 30홈런-30도루 최연소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KBO리그에 없던 ‘월간 10-10’이라는 첫 기록을 완성했다.

6월 23일 한화를 상대로는 ‘20-20’ 주인공이 됐다.

김도영은 이날 홈에서 진행된 더블헤더 1차전에서 ‘괴물’ 류현진의 체인지업을 좌중간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20-20’을 완성했다.

이 홈런으로 김도영은 박재홍(1996-2000년), 이병규(1999년), 테임즈(2015년)에 이어 ‘전반기 20-20’을 달성한 4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8월 3일 한화전에서 29번째 홈런을 기록했던 김도영은 8월 15일 침묵을 깨고 다시 또 KBO

리그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빠른 발과 놀라운 파워로 대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도영은 이제 ‘40-40’을 향한 도전에 나선다. KBO리그에서는 2015년 테임즈가 유일하게 달성한 기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e new EQS SUV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방울대로 565(도선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S 450 4MATIC SUV (5인승)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3.6/ 도심: 3.7, 고속도로: 3.5) 1회 충전거리(km) : 459, 공차중량(kg) : 2850, 배터리 용량(kWh) : 107.1
EQS 580 4MATIC SUV (5인승)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3.5/ 도심: 3.6, 고속도로: 3.4) 1회 충전거리(km) : 447, 공차중량(kg) : 2890, 배터리 용량(kWh) : 107.1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